

홈 > 뉴스 > 전시 > 전시현장&기획

[전시브리핑] 6월의 눈(雪), 노충현의 살풍경

노충현 작가 이달 13일부터 국제갤러리서 개인전

2013년 06월 13일 (목) 17:31:23

이혜원 기자 culture@unionpress.co.kr

한강 둔치에 눈이 소복이 쌓였다.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요즘에 감상하기 좋은 그림이다.

6월에 설경 그림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노충현 작가다. 13일(목)부터 한달 간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 노충현은 1층은 눈이 오는 풍경으로, 2층은 여름 장마철 풍경으로 채웠다. 눈 오는 풍경도 낮과 밤으로 나뉘었다. 낮 경치를 그린 공간에는 백색 형광등을 달아 밝은 공간으로, 야경을 그린 공간에는 외부 조명을 최소화해 어둡게 연출했다.

전시 주제는 쓸쓸하고 고요한 정경이라는 의미의 '살풍경'이다. 노충현 작가가 소재로 삼은 장소는 서울시내 한강이다. "심리적으로 힘든 시절 스산한 풍경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홍대 근처에 살았는데 시끄러운 홍대와 달리 한강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야도 확 트여있었고요."



▲ 노충현의 '살풍경' 시리즈 © 유니온프레스 이혜원 기자

작품 배경은 망원, 여의도, 독섬 등 한강둔치지만 그림만 보서는 어느 장소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노충현 작가는 실제 장소의 모습에서 빼낼 것은 빼고, 색조(tone)는 다소 낮췄다. 덕분에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한 가지 색조로만 그린 작품도 있다. 노충현 작가는 “색채를 통해 풍경을 정의 내린 것”이라며 “내가 그 장소를 바라보는 심상과 기억에 따라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직접 다녀온 장소만 그리는 것도 노충현 작가의 철칙이다. 웹사이트에서 훌륭한 풍경 사진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노 작가는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한강 인근을 배회하다가 마음이 드는 장소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는다. 최첨단 카메라를 쓰지도 않는다. 오래 전에 구입한 400만 화소짜리 콤팩트 카메라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화질이 아니라 풍경에서 받은 감정이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유진상 국제갤러리 사외이사(계원예대 교수)는 “화려한 회화가 범람하는 와중에 노충현 작가는 탈색된 풍경을 그리며 거리감을 강조한다. 1990년대 한국 미술계에 회화가 시들하던 시기의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귀한 작가”라고 말했다.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을 표현하는 노충현 작가가 밝은 풍경을 그릴 일은 없을까. “그림을 그릴 때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요. 일부러 한 가지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메마른 풍경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표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만약 화사한 그림을 그리려면 제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 노충현, 산책, 캔버스에 유채, 227 x 162 cm, Courtesy of the Artist (제공=국제갤러리)

📖 노충현 작가 소개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5년 관훈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살풍경>을 시작으로 대안공간 풀(2006), 사루비아 다방



(2009), 조현화랑(2011)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살풍경’, ‘자리’, ‘실밀
실’ 등의 연작을 통해 상실, 공간의 장소성, 제도적 관습 등을 문학적인
정서로 표현하고 있다.

© 유니온프레스(<http://www.union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